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 통과노선지하화추구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

의안 번호	152
----------	-----

발의년월일 : 1996. 12. 10.  
발의자 : 박상수위원 외 1인

- 용산과 일산 및 문산을 잇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산선이 지상으로 복선전철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바,
- 이는 60여년 동안 마포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로서 주로 화물운송용으로 이용되어 도심 중앙을 통과함으로써 도시미관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소음공해와 철도건널목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중도 유발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유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이 철도는 동·서로 마포중심을 정확하게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상복선 전철을 하고 양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장벽을 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된 이러한 잘못된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가철도도 연구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인 것이 고압선에 의한 각종 전파 방해와 진동하는 소음공해 이 철도는 정남향으로 하루종일 햇빛 한번 볼 수 없는 수천·수만가구의 일조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 이웃 일본에서는 지하 복·복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좁은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 바, 우리도 20년이 훨씬 넘는 지하철건설의 축적된 기술은 그 이상도 충분하리라 보는 바이다.
- 또한 96년 1월 마포구의 질의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종도 신공항선 노선중 도심 구간인 마포관내를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왔고 이미 그에 따른 지질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인 바, 이 철도 또한 절대적으로 신공항선과 같이

지하로 건설돼야 하겠고 한편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도부지를 용산에서 수색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한다면 심각한 교통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하루 약 20만대 이상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는 영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중 도심중앙을 통과하는 용산선(수색~용산)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건의사항

1.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용산선의 지상복선 전철화 사업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지하로 건설하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
1. 그 동안 용산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내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답차원으로 복선전철을 지하로 건설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 용산선 구간을 지하로 건설함으로써 기존 지상철로가 폐쇄될 지역의 유휴지는 장기적으로 마포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것.

1996. 12.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따른용산선마포지역 통과노선지하화추구건의(안)

의안 번호	152
----------	-----

제안년월일 : 1996. 12. 10.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

- 용산과 일산 및 문산을 잇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산선이 지상으로 복선전철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바,
- 이는 60여년 동안 마포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로서 주로 화물운송용으로 이용되어 도심 중앙을 통과함으로써 도시미관은 물론

론 지역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소음공해와 철도건널목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사유재산권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에 있음.

○이 철도는 동·서로 마포중심을 정확하게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상복선 전철을 하고 양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해서 마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장벽을 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반된 이러한 잘못된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또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가철도도 연구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인 것이 고압선에 의한 각종 전파 방해와 진동하는 소음공해, 이 철도는 정남향으로 하루종일 햇빛 한번 볼 수 없는 수천·수만가구의 일조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하 복·복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좁은 국토를 이용하고 있는 바, 우리도 20년이 훨씬 넘는 지하철건설의 축적된 기술은 그 이상도 충분하리라 보는 바이다.

○또한 96년 1월 마포구의 질의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영종도 신공항선 노선중 도심 구간인 마포관내는 지하로 건설하겠다는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왔고 이미 그에 따른 지질조사까지 다 끝낸 상태인 바, 이 철도 또한 절대적으로 신공항선과 같이 지하로 건설해야 하겠고 한편으로 거기서 나오는 철도부지를 용산에서 수색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개설한다면 심각한 교통난에 허덕이는 이때에 하루 약 20만대 이상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여기에 대한 투자가치는 영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 사업구간중 도심중앙을 통과하는 용산선(수색~용산)은 반드시 지하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 건의사항

1. 도시미관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용산선의 지상복선 전철화 사업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지하로 건설하도록 사업계획을 수정할 것.
1. 그 동안 용산선으로 인하여 불편을 감내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답차원으로 복선전철을 지하로 건설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 용산선 구간을 지하로 건설함으로써 기존 지상철로가 폐쇄될 지역의 유휴지는 장기적으로 마포지역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것.